

【 주간포커스 】

고령화와 잠재성장을 하락 및 인적자본 축적

유경원 연구위원

최근 OECD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잠재성장이 급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OECD를 포함하여 기존 연구는 일반적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의 빠른 진행이 잠재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에 있어 인적자본의 역할이 간과되고 있다.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는 1인당 인적자본이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축적되어 왔으며 저출산으로 인해 향후 인적 자본의 축적 속도가 더욱 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 인적자본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고령화가 잠재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최근 OECD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주요 국가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

- 우리나라 1/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1.8% 증가하여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OECD 평균인 0.7%, 유로존 0.2%, G7 0.7%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이에 따라 OECD는 우리나라를 확장적 재정정책과 수출 호조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강한 회복세를 나타낸 국가 중 하나로 평가

□ OECD는 또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¹⁾이 2010~2011년 기간 중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2012년 이후 가장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의 2010~2011년 잠재성장률은 4%로 OECD 평균인 1.2% 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2012~2025년 2.4%로 1.6%p 급락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반해, 같은 기간 OECD 평균 잠재성장률은 1.9%로 0.7%p 상승할 것으로 전망

1)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 없이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함.

<표 1> OECD 잠재성장률 전망치

(단위: %, %p)

국가	2010~2011(A)	2012~2025(B)	(A - B)
한국	4.0	2.4	1.6
터키	3.6	3.4	0.2
호주	3.2	2.9	0.3
멕시코	1.9	2.2	-0.3
뉴질랜드	1.6	2.4	-0.8
캐나다	1.6	1.6	0
미국	1.4	2.3	-0.9
영국	1.2	1.8	-0.6
프랑스	1.2	1.5	-0.3
독일	1.2	1.3	-0.1
유로존	0.8	1.5	-0.7
일본	0.8	0.9	-0.1
이탈리아	0.3	1.5	-1.2
그리스	0.3	1.4	-1.1
스페인	-0.2	2.0	-2.2
OECD 평균	1.2	1.9	-0.7

자료: OECD(2010)

□ 우리나라가 현재의 높은 잠재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잠재성장률이 급락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출산 및 고령화가 지적됨.

- 2009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이 1.15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저이며, 세계에서 대만과 홍콩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임.
- 저출산의 여파로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 3,612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
 - 현재로서는 생산가능인구가 최대 규모인 인구학적 Bonus 상태에 있으나 향후 그동안 지속된 저출산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 OECD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고용 증가율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2010년~2011년 연평균 0.8%에서 2012~2025년 -0.4%로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
 - 반면, 같은 기간 OECD 전체 회원국의 잠재고용 증가율은 연평균 0.1%에서 0.4%로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

□ 이러한 OECD 전망은 기존의 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고령화 논의에 있어서 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만을 부각한 반면 우리나라 고령화의 중요한 특성을 간과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같이 고령화 진전에 저출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 인적자본이 빠르게 축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령화 논의 시 동 영향도 고려해야 함.
- 즉, 경제가 발전할수록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저출산과 인적자본 투자간의 관계 분석, 인적자본 축적에 따른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등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

□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교육비 비중 및 IT와 결합한 인적자본 수준이 최상위인 것으로 평가

- 우리나라의 GDP대비 교육비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높으며 국제학력평가 결과도 최상위
- GDP 대비 R&D 지출, 컴퓨터보유 가구 및 인터넷 활용 가구 비중 등 IT와 결합된 인적자본 역시 최상위 수준인 것으로 평가

<표 2> 우리나라의 교육비, R&D 지출 비율

지 표		우리나라	OECD 평균
	단위	2007	
PISA 국제학력평가 (OEC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2006년 시행)			
· 읽기 우등생 비율	%	21.7(2006년)	8.6(2006년)
· 과학 우등생 비율	%	10.3(2006년)	9.0(2006년)
· 수학 우등생 비율	%	27.1(2006년)	13.4(2006년)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액	%, GDP대비	7.35(2006년)	—
· 공공	%, GDP대비	4.47(2006년)	—
· 민간	%, GDP대비	2.88(2006년)	—
R&D지출	%, GDP대비	3.21	2.28
PC 보유가구 비중	%	80.9(2007년)	—
인터넷 활용 가구 비중	%	94.3(2007년)	—

자료: OECD(2010)

□ 또한 우리나라 가계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출산을 저하 과정에서 가계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꾸준히 증가(이찬영 2008)²⁾

□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나 이와 함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고 있어 인적자본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될 경우 고령화가 잠재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인적자본의 축적이 활발하게 진행될 경우 향후 저축률도 기존 연구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

– 이는 활발한 인적자본 축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이어감에 따라 경제 전체적으로 저축 여력이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

○ 저축률이 하락하지 않을 경우 소득 증가에 따라 금융자산 축적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령화에 따른 자산가격 폭락(asset price meltdown) 우려도 기우에 그칠 가능성도 있음. KiRi

2) 이찬영(2009), “가계재무구조와 사교육비 지출행태”, 금융경제연구 제379호, 한국은행.